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당사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시장의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의 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까지 회사 내부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근 주가 급락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내부 경영 이슈나 사업상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의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무구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회사 역시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 안정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본 확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무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경영진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무 구조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당사 자회사 메가박스와 롯데컬처웍스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양사는 현재까지 합병의 추진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유지하며 관련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은 중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 구조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 추진 예정인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투자자나 세부 조건을 현 시점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복수의 이해관계자들과 의미 있는 논의가 원활히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절차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공시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주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부문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방송 부문**에서는 현재 캡티브 편성 프로그램 2편이 방영 중이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흑백요리사2>, <캐셔로>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당사의 콘텐트 제작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극장 부문의 경우에도, 최근 주요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과 함께 관객 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극장 산업 전반에 오랜만에 훈풍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바타3>, <주토피아>, <만약에 우리> 등 대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객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리미엄 상영 경험을 제공하는 특수관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수관 운영 비중과 경쟁력을 보유한 극장의 특성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분기 이후 수익성 회복에 대한 가시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외부 변수와 심리에 의해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나,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중장기 경쟁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보다 책임 있는 경영과 성과로 그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통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9일

주식회사 콘텐트리중앙

대표이사 이중원 배상